

5월 4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응답

■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36~40 (5월 19일 본문)

■ **포인트:** 손으로 만든 우상과 달리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능력과 지혜의 말씀 안에서 서로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해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상 18:36~40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36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말성경>

36 저녁 곡식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 주십시오.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여호와와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39 온 백성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40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 ≡ 본문 이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예언자)들과 맞서 바알과 하나님 중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그분이 살아 계신 참신임을 모두에게 알리셨어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북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왕의 말과 노새조차 먹일 물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으로 아합을 만나요.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왕상 18:17).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한 일 때문이에요(왕상 17:1).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 가문이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맞섰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이자며 대결을 신청했어요. 이 대결을 위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였어요. 수적으로 훨씬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괴롭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바알이 응답할 리 없었어요. 바알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준비를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판 다음 물을 가득 부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연으로 왜곡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최고의 기적을 보여 주기 위해서지요.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한 물도 모두 태워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합과 수많은 백성,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며 그분만이 살아 계신 참신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어요.

## ≡ 4. 나눔

1)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가족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읽어 보세요(36~37절).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38절)

### ■ 저학년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38절)

### ■ 유아·유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38절)

### □ 질문 가이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가 온종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왕상 18:22~29 참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려주면, 불로 응답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목소리를 흉내 내서 읽게 하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본문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왕상 18:22) 애를 쓰며 바알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기록해요. 엘리야 역시 그들의 모습을 조롱해요. 바알 신이 잠깐 외출했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으니 더 큰 소리로 부르라며 조롱하지요(왕상 18:27). 급기야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인 바알이 응답할 리가 없지요. 한편 하나님은 엘리야의 단호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그 불은 도랑에 가득 채운 물까지 태워서 없애 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어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며 살아 계신 참신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어요.

2)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간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저학년**

살아 계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나요?

■ **유아·유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려 보세요.

□ **질문 가이드**

사람이 만든 우상이 기도를 듣고 무언가를 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이를 기억하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해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살아 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히 11:6).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어요.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 살아 계심을 생생히 보여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의 선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 **5. 감사하기**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 **6. 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널리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